

2024년 창조 시기 강론 자료 1

창조시기 - '통'하는 세상

동남아 어느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무척 더웠으나 창문을 열고 선풍기만 틀어놓았을 뿐, 에어컨은 없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전에 에어컨이 있으면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전기 값 아끼는 것보다 기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 더위를 피하려는 알박함에 이런저런 핑곗거리를 찾았습니다.

창문이 열려있으니 참새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다가 자유롭게 나갔습니다. 참새들은 성전이 자기 집인 양 편안하고 안락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객일 뿐 원래 그 성당은 하느님의 집이면서 참새의 집이었습니다.

언제인가 성당에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불쌍한 참새는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해 정신없이 날아다니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걸 잡기 위해서 손을 휘저으며 쫓아다녔습니다. 참새는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 되었을 겁니다. 밖으로 나가게 하려는 사람들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을 테니 말이지요. 어찌해서 참새는 열어준 창문을 통해 무사히 탈출했고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각자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으니, 세상은 균형을 되찾았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 성당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항상 닫혀 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위해, 여름은 냉방을 위해 꼭 닫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락함과 쾌적함을 얻었지만 바깥 세상과 단절된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람들은 속세의 삶과 신앙생활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어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전이, 실내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갈수록 바깥 세상은 그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깨끗함을 주기 위해 더러워져야 하고 시원함을 주기 위해 더워져야 하고 따뜻함을 주기 위해 탁해져야 합니다. 단절한 채 (바깥 세상에 대한) 착취의 세월이 쌓여,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게 된 것은 아닐까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계절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과 단절한 우리가 인간만 쾌적하게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계절을 죽인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안락한 실내에만 머물고 있으면 뭐가 문제냐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혀있는 부분을 뚫고 '통'한 세상을 느껴야 합니다.

어려서 친구들을 새대가리라고 놀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새가 아니라 막힌 세상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에서 보던 참새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있었고 다니는 길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활짝 열려있는, 막힌 곳 없이 모든 길이 통하는 곳에 사는 참새는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막혀있고 가려져 있는 세상에 사는 새들은 다른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지금 우리 꼴이 꼭 막힌 세상의 참새와 같지 않을까 합니다. 일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던 갇힌 삶에서 벗어나 세상과 ‘통’하면서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워하면서 죽어가는 계절을 애달파 하고 세상에서 사라지는 피조물을 진심으로 추모함으로써 비로소 죽음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인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불편하고 쾌적하지도 않지만 영과 육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통(通-어찌면 痛)’하는 세상에 살겠다고 결심한 이들이 (급히) 많아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2024년 창조 시기 강론 자료 2

관계 회복을 통해 생태적 회개를 이루며 생태적 감수성을 키워나가자!

여러분은 “창조 시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창조 시기는 1989년 동방 정교회 총대주교 디미트리오스 1세께서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세계교회협의회에서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기념하기 시작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가톨릭교회 안에서는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제정을 위한 서한’을 통해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보낼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2019년 담화문을 통해 기후 위기와 교회일치운동의 결실로 거행하는 이 시기를 가톨릭교회의 전례력 안에서 교우들이 동참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황님의 호소와 창조 질서 위협에 대한 응답으로 지역 교회마다 본격적으로 창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 교구의 상황을 덧붙인다.)

그러니 2024년 창조 시기(9.1-10.4)에 떠날 34일간의 순례 여정은 우리신학연구소에서 발간한 가톨릭 생태교육자료인 <물동이> 찬미&찬미를 통해 2015년 5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반포하신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2023년 10월 4일에 반포한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신앙인들이 먼저 생태적 회개를 이루고 생태적 감수성을 키워나가면서 검소한 생활 양식으로 삶의 전환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이 밀려오는 현실을 인류가 올바르게 직시하면서 극복해 나가려면 그 원인이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방식에 있음을 깨닫고 개인과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 가정과 국가를 비롯한 인류 전체가 한마음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후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부정적입니다.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려는 마음보다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강조하듯이 기술 지배 패러다임과 현대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 낸 과학 기술이 하느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기후 문제를 풀어가려면 통합 생태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도 하느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유로 하느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당신을 저버리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이 끊임없이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당신께 되돌아오도록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그리고 하느님 백성의 신앙 고백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에서 전하는 “인간의 죄와 벌”에 관한 성경 말씀은 이러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전해줍니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하고 물은 것은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을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자연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려 들지 말고 더불어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앙인들은 이제 성경 말씀과 함께 창조 세계를 통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 창조 시기에는 성경 말씀과 함께 매일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세요. 이제 성덕생활의 핵심은 하느님과 이웃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를 성찰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하느님의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 지구를 돌보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하느님께 봉헌하는 기도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일상에서 실천하는 우리의 노력을 신앙 행위로 봉헌합시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를 위하는 마음』(김명철 지음, 유영, 2022년 5월 초판 1쇄, 17,000원)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심리학자인 저자는 서두에 “희망과 효능감이야말로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줄 ‘지구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이 강조하는 희망과 효능감을 이제 모든 신앙인이 자신의 일상 안에서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며 키워나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이들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은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신앙 행위로 봉헌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고 공포에 짓눌려 변화를 위한 아무런 시도도 없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키워나가세요. 또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을 지속해 나가면서 효능감을 맛보세요. 이러한 효능감은 하느님을 체험하는 은총으로 전해지며 매일매일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지를 북돋워 줄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듯이 회칙을 읽고 묵상하면서 창조 세계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을 깊이 맛 들이고 생태적 회개를 이루면서 생태적 감수성을 키워나가세요!

2024년 창조 시기 강론 자료 3

생태·기후위기 시대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하느님 창조질서의 보전은 교회의 전통적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느님 창조 질서라 함은 지구, 정확히는 지구공동체를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지구를 “우리 공동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동반(반려) 존재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집(home)은 건조물(house)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community)입니다. 지구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그리고 강과 산, 바다 등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는 가장 큰 공동체입니다. 인간은 지구공동체 안에서 한 성원으로서 다른 성원들과 서로 의존하고 돌보며 살아갑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형제자매’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러한 존재 사이의 상호 의존적 연결성에 관한 깊은 깨달음에서 나온 한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창조질서로부터 스스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인간의 번영만을 위한 자원으로, 재화로 여기고, 마구 채굴하고 남용하고 오염시키며 버리고 있습니다. 지구를 공동의 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원 저장고나 폐기물 처리처 따위로 여기며,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창조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소비자본주의가 시작된 1950년대 이후 사람들의 생활수준의 보편적 향상은 창조질서인 자연생태계의 훼손과 서식지의 파괴, 기후변화를 불러일으키며 “생태·기후위기”를 낳았습니다. 토마스 베리 신부님은 “21세기 인간의 진보는 지구의 황폐화를 의미하고, 이는 곧 인간의 운명이 될 것”임을 예언하며, 인간이 생태 문명(ecozoic)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는 지구공동체를 위험한계선까지 밀어붙이며, 거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2100년까지 생물다양성이 25%가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다시 돌아보게 하며, 근본적으로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하도록 만듭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만들어 인간이 이를 돌보게 하셨습니다(창세기 2:15). 가난한 이의 우선적 돌봄은 가톨릭교회가 전통적으로 추구한 숭고하고 거룩한 가치입니다. 생태·기후위기 시대에 가난한 이의 돌봄과 지구공동체의 돌봄은 서로 연결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세상의 굶주림과 열악하고 차별적인 노동조건, 인종 차별과 이주노동자 및 난민, 전쟁 등 인간사회의 부정의와 부조리, 불평등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인간 영혼의 구원 문제와 함께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해 사회교리를 통해 신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적 태도와 행동을 가르쳐 왔습니다. 생태·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각자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편리함과 쾌적함만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에서 물러나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양식에 머무를 수 있도록 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체제가 변할 수 있도록 한 시민으로서 변화를 요구하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 또는 듣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에 예언자의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도록” (에제키엘, 2:2-5) 예언자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성으로 깨어있는 교회공동체 속에서 함께 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생태·기후위기 시대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기를 멈추는 것”입니다(『기후교회』, 307쪽).